

SERMON 1 OCTOBER 2017

당신은 때때로 그들의 평범한 삶을 포기한 남자와 여자들이 어떠했을지 궁금해 하시지요? 어부들, 세리들, 심지어 목수들까지도 아마 어릴 적부터 준비했던 사업과 생계 수단을 포기하고 그들의 삶을 예수님과 함께 나누는 것을 스스로 발견한 것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이 그런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고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 발견 했을 때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그들이 보고 들은 모든 놀라운 것들을 생각하면서 잠이 깬 채 누워 있었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나병 환자들에게 안 수하시고, 온갖 종류의 병을 앓고 있는 이 들을 치유 하고, 성난 바람과 파도를 헤치며, 물 건너 편으로 걸어가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일상 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상적인 일들을 함께 나누는 것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신 것을 보는 것은 어떠했을까요? 그렇다면, 항상 존경 받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어떻게 보고 느끼는지, 누군가가 그렇게 당당하고 박식한 것처럼 보였다, 분명히 화가 나서 예수님께 도전하고 싶어 하는 것을 보는 것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우리는 이것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인간적인 남성과 여성이라는 것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 이야기들은 빈번하게 말하는 것으로부터 그들의 영향력을 잃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성경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믿음을 이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특별한 사람들과 인생과 신념을 존중하고 종종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너무나도 명백한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엮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발견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저버린 것처럼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길고 긴 여정을 거쳐 길고, 불만을 품고 진정한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겪으면서 고심한 출애굽기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주님이 계십니까?" 히브리 백성들은 외쳤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고, 때때로 그들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수 년간 계속되는 믿음의 근본적인 여정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지혜, 그런 권위를 부릴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들의 뒤집어진 세상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그들의 약속이 그들의 종교의 구조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을 점점 더 잘 알고 있었음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들의 정체성이 몇 세기 동안 유대인들 메시아의 도래를 찾아 왔던 모습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 바로 앞에서 정말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을 말하며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은 그들에게 너무나도 엄청나게 진실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그들의 메시아가 있었고 그들은 그들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에 반대했습니다. 군중들이 그들 주위에 빙 둘러 서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단지 음식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치유를 위해서도 굶주려 있었고,

지혜를 위해서,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따뜻하게 해 주고 그들을 하나 되게 하는 지혜의 말씀, 인생의 의미를 주는 말씀, 하나님과 연결하는 말씀,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께 대항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힘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의 대부분의 권위를 잃게 될 사람들 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이 예수님께 예루살렘으로 들어 가셨을 때 환호를 부르고, 우리가 마태로부터 듣기 전에 그들이 행했던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은 사태가 통제 불능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완벽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 들이 사회의 좋은 교단, 우리의 교회,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와 같은 사회의 질서에 도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안정성과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강력하게 방어합니다. 하지만, 우리들 중 누구도 그것이 우리 자신의 자아, 우리가 하는 역할에 종종 연관되어 있는 자신감에 도전할 때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께로 온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의 권위를 어디서 얻었는지에 대해서 그를 곤란하게 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당신의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 가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것을 다루었는지 압니다 - 그들은 그들을 용납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하여, 하나님이 침례를 받았거나, 세례

요한을 위하여 이 권위 있는 자들을 가졌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의 권위는 어디서 오는 건가요? 그것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자신을 위해 이 권위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모든 것은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겸손함은 우리 앞에 있기에 우리가 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위한 자부심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어떤 것 이라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는 것과 사람들의 오해를 풀어주는 것과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것에 대해 유창하게 글을 썼습니다: "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권위를 부여 받은 사람은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다! 얼마나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배우는 교훈이 되는지요! 만약 우리의 지도자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세상은 다른 장소가 되지 않았을 까요! 바울은 이것이 빌립보의 젊은 지역 사회의 화합을 위협하는 것은 겸손함의 결여였습니다. 수세기 동안 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는 또한 많은 사람들의 태도가 그들이 사회에서 느끼는 감정들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수치심과 명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문화였습니다. 그는 종교 당국이 그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 아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아버지의 비유를 말합니다. 큰 아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가장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들은 거절합니다, 그것은 전례가 없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바꿔 버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옳은 일을 했는지에 대한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수치심이나 명예로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훌륭하게 보이는 방식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암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처음에는 옳은 일을 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그들의 마음을 바꾼 세리들과 매춘부보다 더 나쁘다고 말하는 그것은 매우 모욕적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권위가 도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더 높은 권위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예수께서는 또 다른 비유를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를 체포할 길을 찾으려 떠날 것이라라고 말하셨습니다.

예수는 자신이나 권력을 신장시킬 권위를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의 목적, 사랑, 치유 그리고 정의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중심에 겸손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겸손함은 잘못된 것을 도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그 자신이 하신 일을 믿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단히 겸손하고, 그러한 오해를 겪어야만 했고, 반대와,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억울한 고통과 억압적인 권력과 권위에

맞서 싸우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는 이 모든 것에 복종하곤 했는데, 왜 신이 그를 저버린 것처럼 보이는지 궁금해 하는 고통을 감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겸손하다기보다는 모욕감을 느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아닌지?” 광야에서 떠돌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처럼 질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미를 지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심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의문을 품는 시기가 있습니다. 수많은 예들 중 하나는 테레사 수녀입니다. 그녀가 죽은 후에 그녀의 일기는 출판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것은 그녀의 투쟁과 어둠의 관계를 폭로한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 싸움에서 탈출한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만, 여러분이 그렇게 하셨다면 정말 드문 일입니다. 이 어둠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이 우리 자신의 자존심인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그들의 자아가, 둘째 아들의 비유처럼, 어떻게 나쁜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볼 때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마도 그들의 마음과 삶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부끄럼을 타는 듯한 부끄러워함은 여전히 그들이 참을 수 없었던 것처럼 여전히 그들에게 빛을 비추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희망의 출현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권위와 심장의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겸손함의 투쟁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너그러우며, 위엄 있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위엄 있는 권위의 하나님 앞에서 있을 때 우리가 아는 것은 겸손함입니다. 다행히도 그런 겸손함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빵과

포도주를 받기 위해 우리 손을 내미는 그런 겸손함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단결시켜 믿음과 희망으로 뭉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겸손함과 함께 하는 것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